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2019.10.29.(월) 14:00</b>	<b>배포</b>	<b>2019.10.29.(월)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<b>담 당 자</b>	김종식 사무관(02-2100-2864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## 제 목 : 20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

### ◆ '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(TECH 평가) 결과

- ▶ (대형은행 그룹) 1위 **KEB하나은행**, 2위 **기업은행**
- ▶ (소형은행 그룹) 1위 **대구은행**, 2위 **수협은행**

### ◆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결과,

- ▶ (레벨3) 1개 은행, (레벨 2) 1개 은행 신규 진입

※ (레벨 심사) 은행별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은행 자체 기술 평가로 기술금융 공급이 가능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\*

\* (자체 평가 비중) (레벨1) 예비실시 → (레벨2)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% 이내 → (레벨3) 50% 이내 → (레벨4) 제한없음

### [1] 2019년 상반기 은행 TECH 평가 결과

- (평가요소) 기술금융 ①대출공급규모와 ②질적구성(기술기업지원), ③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정량적(83점)으로 평가하고 기술금융의 ④은행별 내재화 정도(지원역량 항목)를 정성적(17점)으로 평가

< 평가 지표 (요약) >

< 평가 항목 >		< 평가 요소 >
평가 지표	(배점)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80px; float: left; margin-right: 10px;"> 정량평가 (83점) </div>	1. 공급규모	(20.0) · 평가액 증가, 차주수 증가
	2. 기술기업지원	(48.0) · 기술신용대출 잔액, IP담보대출 평가액, 창업기업 비중 등
	3. 기술기반 투자 확대	(15.0) · 기술금융 투자 증가
	4. 지원역량	(17.0) · 기술금융 역량(인력·조직), 리스크 관리 체계, 기술력 반영 시스템 구축 정도 등
정성평가 (17점)		

□ **(평가결과)** 대형은행 그룹은 KEB하나은행이 1위, 기업은행이 2위를 차지

○ 소형은행그룹은 대구은행이 1위, 수협은행이 2위

<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>

구 분		'14.하	'15.상	'15.하	'16.상	'16.하	'17.상	'17.하	'18.상	'18.하	'19.상
대 형	1위	신한	국민	신한	기업	기업	하나	기업	하나	신한	하나
	2위	우리	신한	하나	신한	신한	신한	신한	기업	국민	기업
소 형	1위	부산	부산	부산	부산	경남	대구	경남	부산	대구	대구
	2위	대구	대구	경남	경남	부산	경남	대구	대구	경남	수협

\* 기업은행은 '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(16년 前 기은은 특수은행 그룹)

< 대형 은행 >

- ① KEB하나은행은 기술신용대출·IP 담보대출 평가액 등 정량지표 뿐만 아니라 인력·조직·리스크 관리 등 정성지표 모두 1위를 기록하여 종합평가 1위
- ② 기업은행은 배점이 가장 큰 기술대출 기업지원(48점)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, 정성평가(지원역량)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보여 종합평가 2위

< 소형 은행 >

- ① 대구은행은 공급규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기술기반 투자확대·지원역량에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여 종합평가 1위
- ② 수협은행은 공급규모·지원역량 등에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여 종합평가 2위

## [2] 은행 자체 기술금융 레벨심사 결과

- (평가 요소) ①전문인력 수, ②평가서 수준, ③실적요건(직전 단계 실시기간), ④물적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여부 및 단계를 결정

※ 민간 기술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」가 심사

-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(레벨)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

< 평가요소 및 단계별 인센티브 >

항목	예비실시	정식실시		전면실시
	레벨1	레벨2	레벨3	레벨4
전문인력 수	5명 이상	10명 이상	15명 이상	20명 이상
평가서 수준	70점이상 60%	70점이상 70%	70점이상 80%	80점이상 80%
실적요건	-	6개월	6개월	1년
물적 요건	별도 조직 마련, 자체 모형 구축, 전산화 등			
자체 TCB대출 가능금액*	-	20%	50%	제한없음

\*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 대비 비율

- (평가결과) 기술금융 레벨심사 결과 1개 은행(대구)이 레벨3, 1개 은행(농협)이 레벨2에 신규진입

- 자체 기술금융 실시 단계에 진입한 10개 은행은 자체 기술금융 전문인력·조직, 독자적 평가모형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

※ (신규진입) 대구은행 ⇨ 레벨3 진입, 농협은행 ⇨ 레벨2 진입  
(기존레벨 유지) 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 ⇨ 레벨4 유지  
경남 ⇨ 레벨3 유지

< 10개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현황 >

레벨	레벨4							레벨3		레벨2
은행	산업	신한	우리	하나	기업	국민	부산	경남	대구	농협
(18.下)	레벨4							레벨3	레벨2	레벨1

### [3] 시사점

#### ① 기술금융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성숙

- (양적 측면) '19.6월말 현재 기술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'18년말 대비 +18.2조원 증가한 **182.0조원**

\* 기술신용대출 잔액(조원) : ('16말)92.9 ('17말)127.7 ('18말)163.8 ('19.6말)182.0

- 특히,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기술금융이 **25.8%**를 차지

- (질적 측면) 기술금융 실적 중 창업기업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기술금융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수단으로 발돋움

\*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잔액비중(%) : ('19.1월) 22.9 → ('19.6월) 34.9

차주수비중(%) : ('19.1월) 44.7 → ('19.6월) 51.7

→ 기업 입장에서 일반 중기 대출에 비해 평균적으로 대출금리 0.20%p 인하, 대출금액 2.2억원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편의를 제공

#### ② 지식재산권(IP) 담보대출도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취급 등으로 금년들어 빠르게 증가\*

\*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잔액(억원) : ('18년말) 3,151 → ('19.6월말) 4,044억원

- 특히,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우대를 받았으며, 대출여력이 상향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\*

\* ('19.8월, 특허청 IP담보실태조사) 조사대상 44개 기업중 33개사(75%)가 신용대출 대비 0.5~2%p의 금리우대, 6개사가 대출한도 증액·추가대출 가능

※ [참고] 주요 기술금융 사례

① 창업기업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례

- '15년 창업한 (주)○○○는 재무실적 만으로는 신용대출이 쉽지 않았으나, 친환경 발수가공 우수기술(T3)을 감안한 여신심사를 진행한 ○○은행에서 신용대출 3억원을 이용('19.8월)

② 기술력 등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례

- '01년 창업한 공기조화기용 제어시스템 제조기업 (주)○○○는 우수한 기술력 (T3) 등 미래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○○은행에서 신용대출 25억원을 이용 ('19.8월)하여 대기업과 신규계약 체결 성공

③ 담보여력이 부족하였으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례

- '12년 창업한 PDF물탱크 제조기업 (주)○○○에 대해 시중은행은 담보 부족 으로 대기업과의 수주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거절하였으나, ○○은행은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4억원을 지원('19.9월)

③ 은행권도 지속적인 기술금융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자체 기술금융 역량이 강화

- 10개 은행 모두 전문인력·부서를 갖추고 차주 특성을 고려한 독자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자체 기술금융 역량이 강화

< 10개 은행의 기술평가 역량 현황 >

레벨	레벨4							레벨3		레벨2
은행	산업	신한	우리	하나	기업	국민	부산	경남	대구	농협
전문인력	21명	20명	20명	20명	20명	22명	10명	7명	7명	10명
조직	평가전담조직 내 전담분야별 세분화						평가전담조직			
평가모형	은행별 독자 기술평가모형 운영(업종·업력에 따라 세분화)									
전산시스템	기술금융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									

- 10개 은행의 기술평가서 품질 평균점수는 92.0점으로 안정적 품질수준을 유지

< 10개 은행의 기술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>

레벨	레벨4							레벨3		레벨2
은행	산업	신한	우리	하나	기업	국민	부산	경남	대구	농협
80점 이상 평가서 비중	93%	87%	87%	87%	100%	100%	100%	100%	100%	87%
평균점수	87.0	83.0	92.7	87.7	94.3	97.7	97.3	93.0	96.7	90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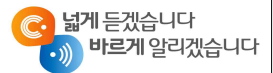
#### [4] 향후 계획

- 기술금융이 은행권의 여신심사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기술-신용평가 일원화를 추진('20년부터 단계적 도입)
- 이를 위해 유효성 평가의 분석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통합여신모형 가이드라인 수립·보급('19.下)
- 기술금융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기술금융의 질적 도약을 위한 TECH 평가체계 개편 등을 추진('20년~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